**­­­­­­­­­2023년 1학기 동양철학입문 기말고사**

**학번: 2019320110**

**성명: 정우성**

|  |
| --- |
| **【주의사항】**   1. **총 네 문제이며, 문항당 배점은 10점입니다. (40점 만점)** 2. **시험시간은 2023년 4월 24일(월) 12:00-13:30입니다.** 3. **작성 완료된 답지는 PDF 변환하여 블랙보드의 “과제 및 시험” → “중간고사”에**   **올려주세요.**   1. **시험 요령**   **1) 오픈북이며, 답변은 논술형입니다.**  ※ 외부 자료 활용 가능. 인용시 "저자, 제목, (수록잡지, 호수), 발행년, 페이지"로  각주 달아주세요.  **2) “【답변】”이라 표시된 박스 안에 답지를 작성해 주세요.**  **3) 포인트 11, 줄간격 150~160%, 폰트는 프로그램 기본 폰트를 사용해 주세요.**  **4) 문항당 최대 분량은 a4지 2장(문제 제외)까지 허용합니다만,**  **가능하면 1장 내외로 완료해 주세요.** |

|  |
| --- |
| 【답변1】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Evil하다는 것이 아니고, 3번 순자의 견해처럼 개인은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은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분별 능력과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인용문의 고자의 말처럼, 인간 본성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동쪽으로 길을 터놓을지, 서쪽으로 길을 터놓을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럼 길을 어떻게 터놓을 수 있는가? 스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배워야하죠. 올바른 스승에게 배워야 도덕적인 방향으로 본성의 발현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본성을 바꿀 순 없지만, 발현하는 태도나 방식, 곧 도덕적 성품은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스승은 순자의 개념에서처럼 초월적인 존재인 성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의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자신을 발전시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의지가 강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쌓여 자연스레 발전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몇몇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거나, 강연 및 대담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곤 합니다. 그 가르침들이 곧 스승이 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책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힙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누르거나, 사람들의 이익을 내 이익과 같이 추구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사회화’되고, 사회화된 인간을 현대 사회는 착한 사람, 바람직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  |
| --- |
| 【답변2】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의 도덕성이 무엇인지 그 판단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란, 개인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평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이었는가? 그 행위의 의도가 도덕적인가?  여기서 후자, 행위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도덕적으로 평가되는 해당 행위를 하였는지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논지에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가요? 그 기준으로써 ‘예’가 적합한지 이 질문은 묻고 있습니다. 인용문 1의 공자가 말했던 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주례에 기반한 세속 의례의 의미를 확장시켜 예를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인을 파악하는 객관적 기준이라 하였으나, 개인의 도덕성과 조상에 대한 제사 의식 간의 연관성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인용문 2의 묵자의 비판처럼 허례허식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이는 잘못된 판단 지표라 생각합니다.  인용문 3의 맹자가 제시한, 양보 또는 겸손은 어떨까요? 오히려 이 쪽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춘추전국시대의 도덕성 개념은 현대의 개념과 다르겠습니다만, 이 글의 논지를 “현대의 도덕성”에 입각하여 서술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렴, 겸손, 법을 잘 지킴, 배려 등 맹자가 제시했던 사단과 꽤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가 바랬던, 허례허식을 내려놓은 “예”는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써 완벽하진 않아도 일정 수준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공감하고, 사회가 정의롭다고 믿는 행동을 하며, 남에게 양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다만 처음 정의에서 말했듯, “사람이 도덕적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맹자가 마음에 보존하라 하였던 그 “예”가 인간의 행동에 묻어난다고 믿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

|  |
| --- |
| 【답변3】  인용문으로 제시된 백마비마론의 전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의 인식 대상은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옳다고 두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명가의 백마비마론에서 다뤄지는 인식론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표현으로 대상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둘은 일대일 대응되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인간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인식할 수 있는가? 인용문 1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일대일 대응된다고 표현하였고, 인용문 2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인식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희다 와 돌은 같이 인식할 수 있으나 희다 와 단단하다 는 같이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저는 로크의 대표 실재론에 기반하여 실재로부터 생겨난 관념을 인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 세계의 실질이 독립적으로 실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념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잡게 됩니다. 이 관념을 통해 우리는 실재를 인식합니다. 이 때 관념은 실재와 일대일 대응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마치 수학에서의 함수와 같아서, 관념이 여러 개의 실재에 대응할 수 없을 뿐 실재는 여러 개의 관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념은 실재로부터 기반한, 단일 관념입니다.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 관념들을 엮어 복합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색을 보고 ‘희다’ 라는 관념을 얻었고, 단단한 무언가를 보고 ‘단단함’ 이라는 관념을 얻었다면, 둘을 엮어 ‘희고 단단함’ 이라는 복합 관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복합 관념을 통해, 우리는 관념에 대응할 수 있는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희고 단단한 돌을 본다면, 미리 만들어 둔 ‘희고 단단함’이라는 관념을 통해 이 특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한 ‘관념’은 ‘언어 표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한 것을 언어로써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언어 표현은 실재와 대응한다. 인간은 실재에 대해 인식한 내용을 언어 표현으로 엮어낸다. 언어 표현과 실재는 선후 관계가 정해져있지 않다. 실재를 통해 얻은 관념이 언어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언어 표현들을 엮어 얻어낸 관념에 실재가 대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지고 초반부에 제기된 두 질문에 답한다면, 언어 표현은 실재와 일대일로 대응하며, 인간은 하나의 관념으로는 하나의 실재만 인식할 수 있으나 관념 여러 개를 엮은 복합 관념을 통해 여러 개의 관념의 의미를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 --- |
| 【답변4】  1번 인용문, 법가의 입장에서 도가의 입장을 비판하였습니다.  정치는 목표를 가져야한다. 어떤 이상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항상 해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가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법가는 나라의 부국 강병을 명확한 목표 지점으로 삼고, 이를 위해 법을 만들고 꾸준히 개정하며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반면 도가는 어떠한가? 무엇이 도가의 정치의 목표인가?  도가는 인간 모두에게 도가 내재하여 있다고 믿는다. 군자가 무위로써 인간이 자연스럽게 내재된 도를 발현하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 하며, 이를 위해 무위 자연에 입각한 정치를 내세운다. 그들이 말하는, 도가 발현된 이상적인 사회가 무엇인가? 도가에서 말하길, ‘도’란 분화할 수 없는 세상 만물의 근원이기에 언어로써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자신들조차 자신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저 ‘도’가 옳다고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발현되면 당연히 좋을 거라고 기도하며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는 한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써 가져야할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도가에서 군주에게 무위를 권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군주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수동적인 존재로써, 군주를 본받고 그의 태도를 답습한다는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런가? 백성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군주의 태도만을 그대로 복사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이로움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한다. 군주를 따르는 것이 이로움이 될 때만 백성은 군주를 따를 것이다. 군주가 무위로써 정치를 할 때, 그것이 백성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면, 또는 무위 정치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로움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포착된다면 백성은 군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로움을 따를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사회인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며, 군주의 권세는 나날이 약해질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군주 덕분에 생겨나는 빈 자리를 탐내기만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이 도가가 바라는 자연이자 이상 사회인가? |